

소외당한 '민중언어'의 제자리 찾기

「우리말 갈래사전」 펴낸 사진작가 박용수씨

청각장애로 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박용수씨(55)가,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꼼꼼히 움켜잡아 가려서 「우리말 갈래사전」으로 묶어냈다. 생경한 한자어와 외래어 투성이인 우리의 언어문화 속에서 참 우리말을 슈아내기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음 속의 상상에 꼭 들어맞는 우리말을 '쓰기 위한 사전'이 한 개인의 10여년 노력 끝에 엮어졌다는 점에서 박용수씨에게 보내는 모두의 시선은 경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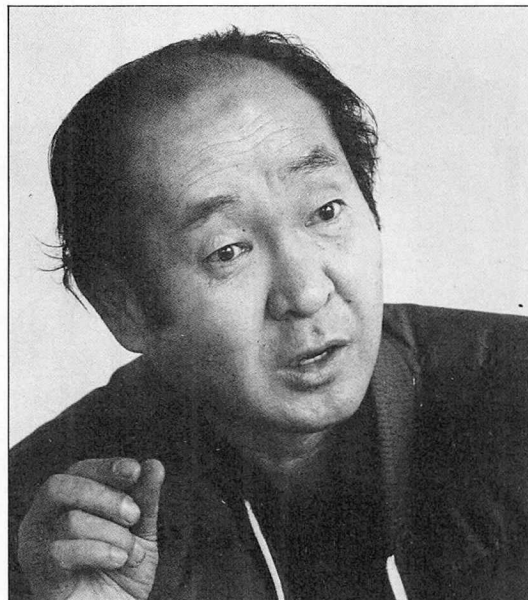
「우리말 갈래사전」(한길사)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뺀 우리 고유의 낱말 3만6천개(원고지 7600장)를 뜻갈래와 쓰임새에 따라 33항목으로 가름하여 풀이한 '작문용'사전. 종래 읽기 위해 찾아보던 독서용 사전과는 체제나 활용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표현하고자 할 때 마땅한 '낱말찾기'의 길이 없었던 터에 태어난 사전이라 우리말을 아끼는 이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선물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가까이 지내는 문인과 주위 사람들이 조출한 출판기념회(3월18일 기독교회관)를 열어 주기도 했다.

“막상 책으로 나오니 세삼 지난 세월이 물방울처럼 떠오르는군요. 모쪼록 많은 문인들이 이 사전을 애용해서 우리 한민족의 말인 '민중의 언어'를 다듬고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음을 죽이며 매달려온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군요.”

'청각장애' 극복하고 10여년간 집념 쏟아

18세 때 장티푸스를 앓아 청력을 잃고 언어구사도 매끄럽지 못한 박용수씨는 경남 진

시인이자 '민중사진작가'로 알려진 박용수씨가 10여년의 각고 끝에 「우리말 갈래사전」을 엮어냈다. 모두 3만6천개의 낱말을 33항목으로 가름한 이 사전은 비전문인이 편찬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어생활인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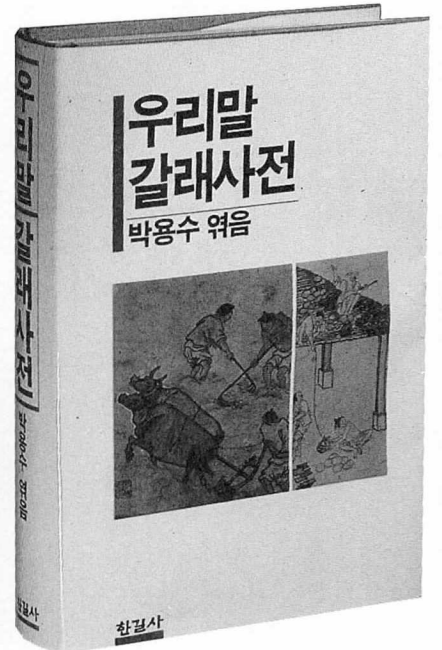
주중학 4년이 학력의 전부다. 그러나 그의 언어적 감수성은 우리말의 현실을 날카롭게 감지한다. 책의 서문에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언문이라는 천대에 눌러 우리의 생활용어 권으로부터 소외당해오는 동안 잊혀지다시피 한 참 민중언어를 찾아내고, 사대부의 한문숭상 취향에 의해 제정된 '표준어'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우리 고유의 낱말을 가려 「우리말 갈래사전」이라는 이름의 작문용 사전을 엮었다. 이 사전으로 해서 우리 문학작품 속에 우리 낱말의 사용빈도가 높아져가면 그 영향은 비국어적인 어휘의 퇴장이라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박용수씨의 「우리말 갈래사전」에 대한 막연한 구상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다. 진

주지역의 문예지 「영문」에서 시를 추천받아 등단한 후, 76년 장편서사시 「바람소리」(실천문학, 84)에 착수하면서부터 구체적인 사전편찬작업을 병행했다. 낯선 우리말을 보이는 대로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혼동되는 용어는 그림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 온 방안의 벽에다 붙여가면서 낱말을 분류하기도 했다. 장시를 탈고한 후 본격적으로 사전작업에만 몰입할 수 있었는데, 낱말을 분류하고 항목을 설정하는 데만도 3년이 넘게 걸려, 86년 초에서야 장장 7,600장의 원고를 출판사측에 넘길 수 있었다.

“원고지가 온 방안에 하나 가득했죠.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여간 애를 먹지 않았어요. 눈독은 질퍽한 바닥에 원고몽치가 젖는 바람



에 다시 쓰기도 하고, 또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출판사를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원고를 넘기고도 작업이 순조롭지 않더군요. 분류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류도 많아 재조정을 되풀이하면서 기일은 자꾸만 늦춰졌지요.”

어려움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낱말분류작업. '작문용' 사전이니만큼 분류가 정확해야 얻고자 하는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분류기준이 아주 모호했기 때문이었다. 박용수씨는 그래서 이 사전을 '무지개사전'이라고도 부른다.

“분명히 색깔은 있는데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무지개처럼, 낱말들을 어느 동아리에 집어넣을지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합리적인 출판문화를 일구는 두 총서

출판·편집총서

-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편/白承吉·朴觀喜 옮김
값 4,000원
- 2 출판의 진실
스탠리 인윈/韓永鐸 옮김
★「오늘의 책」으로 선정
값 5,500원
- 3 책의 혁명
로베르 에스카르베/林文榮 옮김
★「오늘의 책」으로 선정
★ 한국번역가협회 추천도서
값 4,500원
- 4 책 만들기
마샬리/鄭丙圭 옮김
□ 미간

- 5 잡지 편집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高廷基 지음
★ 한국출판학회상
값 6,000원

- 6 책은 만인의 것
출협제직 18년동안의 기록/李瑋薰 지음
값 6,000원

- 7 뉴미디어 용어사전
金承萬 편저
값 6,500원

- 8 출판회계
朴永緒 지음
값 7,000원

- 9 편집자의 세계
高廷基 편저
값 5,000원

- 10 출판경영론
H·S 베일리 Jr./全泳杓·吳慶鎬 옮김
값 6,000원

- 11 교정기술 (실습자·모범답안지를 합철한 것)
편집부 편
上권 값 4,000원 · 下권 값 5,000원

- 12 현대출판학원론
朴有鳳·蔡白 공저
값 7,000원

글 더 잘 쓰기 총서 어떤 글이랴라 팔리는가

- 1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 金炳元 지음
값 3,500원

- 2 논픽션 쓰는 법
헤어즈 B. 제이콥스/金炳元 옮김
값 4,000원

-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 옮김
값 4,500원

- 4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값 4,500원

- 5 동화 쓰는 법
리 와인담/李相琴 옮김
값 4,500원

- 6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M 로버츠/金正 옮김
★ 청소년 우량도서선정
값 5,000원

-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 F. 심버그/고정기 옮김
★ 88년도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普成社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 719-0784

이리저리 다시 옮겨 놓고 빼고 하다보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사실 아직도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읽기 위한 사전’ 아니라 ‘쓰기 위한 사전’

분류를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 것도 혼자서 작업을 이끌어온 한계였음을 그는 솔직히 인정했다. ‘한글학회’ 같은 곳에서 이 작업을 했다면 더욱 권위가 섰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표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짜맞춘 낱말분류는 모두 33항목. 이용자가 찾기에 편리하도록 그 쓰임새와 동류성에 따라 나누고, 다시 품사별·용어별·유의어별로 갈랐다. 항목의 차례는 사람과 관계되는 항목을 우선으로 해서 친족·생활 부분을 거쳐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됐다. 부사와 의태어·의성어, 그리고 격언의 항목은 따로 붙였다.

결국 그가 젊음을 식이며 이룬 사전 작업은 우리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민중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임을 알 수 있다. 소외된 민중의 언어를 살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그의 또다른 생활과 맞물려 돌아간다. 84년부터 ‘민통련’ 보도실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시위현장마다 카메라의 초점 맞추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 ‘골통’(골수 민통련)이라는 별명이 주어질 정도로 그는 맹렬한 투지로 역사의 기록을 담는다. 두번이나 구속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는 것은 ‘현장에 없으면 기록이 없다’는 교훈.

“남영동조사실에 있을 때였어요. 마침 ‘건국대농성사건’이 터졌죠. 오직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 쫓아다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선 현장의 핵심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접하기도 했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그의 옷차림은 늘 검은 빛을 띤다. 그만큼 그의 생활 자체는 소리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가열한 운명에 대한 저항이며, 곧 현실의 어

둠을 견어내겠다는 투사의 열정으로 비쳐진다.

사진과의 인연은 20살 때 큰형의 권유로 사진관에 취직, 修正일을 배우면서 부터. 부산에서 손꼽히는 수정사로 알려지면서 서울의 허바허바사진관에 스카우트된 후, 박봉과 부당한 노동행위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74)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체험적인 투쟁은 사회민주화운동의 한 걸음을 떼게 된다.

「민중일보」와 「경상대학교」에 포토에세이를 싣기도 했던 박용수씨의 얼굴은 요즘 ‘민중사진작가’로 더욱 친근하다. 그가 기록한 엄숙했던 역사의 순간들을 모은 사진집 「민중의 길」(분도출판사)도 곧 나올 예정이다. 이제 그의 인생은 민중을 바탕으로 한 우리말과 시와 사진 사이를 오가며 남은 열정을 사르는 것으로 꼭 차버린 셈이다. 박용수씨는 「우리말 갈래사전」의 개정판이라는, 새롭게 부과된 또 하나의 과제를 이미 온몸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

“사전을 엮는 일이나 민중운동이나 다 같은 맥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생애는 증보판을 마무리는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여기 담긴 많은 오류를 발견해서 고쳐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정확한 분류도 해야겠고, 아직도 숨어 있을 고유한 우리말들을 새로이 찾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하고, 위치도나 해부도 같은 그림을 넣어 정확한 부분의 용어를 설명해야 할 테고...”

지금은 타이프라이터로 작업을 하니 손으로 쓰기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며, 컴퓨터가 있다면 자료검색이나 분류가 훨씬 능률적일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보인다. 얼마전 그는 일터이자 보금자리인 ‘박용수사진연구소’를 열었다. 낮에는 역사의 현장을 따라, 밤에는 시와 우리말을 좇으며 그는 홀로 사는 외로움을 잊었다. 경남 진양군이 고향인 박용수씨는 현재 자유실천문인협회 지도위원과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전민련 보도특별위원으로 있다.

—김지원 기자

화제의 책

창작현장에 밀착시킨 용어해설

崔炳植 編 「東洋美術事典」



동양미술에 관련된 회화용어, 기법, 畵論, 인명 및 畵派 등을 풍부한 도판과 함께 1천여 항목에 걸쳐 총정리한 「東洋美術事典」이 최근 출간됐다.

동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하는崔炳植씨가 홍콩과 북경, 대만을 비롯한 각종 국내의 자료를 취합, 한·중·일 및 동양권 미술의 기초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화론과 용어 해설을 가능한 한 실제 창작현장과 연결시켜 정리한 점이 특징. 이를 위해 600여점에 이르는 참고도판을 수록, 이론과 기법의 실제적 적용의 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산수화에서 山勢나 樹木의 주름을 표현하는 기법인 ‘준법(皴法)’의 경우, 준법의 대강과 형성과정, 종류 등을 설명하는 한편, 그 준법이 구사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명확한 개념 획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수록작가는 1988년 이전에 작고한 사람으로 제한, 비교적 최근에 활약한 작가들까지 폭넓게 망라했는데, 220여명의 한·중·일 주요작가가 그들의 대표작과 함께 소개돼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중심은 역시 회화사 범주의 용어 및 이론 해설로서, 특히 국내에서 미처 개념정립이 시도되지 못했던 용어들을 새롭게 포함시켜 동양미술에 관한 한 현재로서 가장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의 최초의 본격사전이라 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의 불편을 덜고 나름대로의 小事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편자의 겸양과는 달리, 지나치게 방대한 부피로 사전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하기에는 불편하게 꾸며졌다는 사실을 들수 있을 듯하다.

책 앞에 따로 색인을 마련해 알고자 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부록으로는 ‘참고문헌목록’을 비롯, ‘한·중·일 현대彩墨史 연표’ ‘한·중·일 대 주요화가 생존연대 비교표’ ‘근·현대 일본화 주요계보도’ ‘역대 鮮展 동양화·사군자부문 입선작가 명단’ ‘역대 國展 동양화부문 수상작가 및 심사위원 명단’ 등을 실었다.

전면 울칼리로 제작돼 미술사전의 특성을 살렸다. 편자는 「中國繪畫史論」 「現代韓國彩墨畫」 「中國現代彩墨畫」 등의 우리말 저서와 함께 중국어 저술로서 「中韓南宗畫之研究」를 펴낸 바 있다.

갑을출판사/B4/450면/75,000원

도서출판 진선

702-2921, 717-2131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색하는 사랑을 위하여!

詩人 칼릴 지브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심오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살아있는 언어의 철학자.
지브란과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메리 헤스켈.
지적인 두 연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전해준다.

정은하 엮음 값 2,000원



모래 · 물거품

위대한 정신 칼릴 지브란과의 만남

샘물같이 명정한 삶의 진리로
우리 영혼 깊숙히 파고드는
칼릴 지브란의 詩
그의 기쁨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이 한층의 노래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신간

칼릴 지브란 · 정은하 값 2,000원

늘·개·어·있·는·점·은·목·소·리·로